

아이리, 금속노조 파괴 목적 직장폐쇄

부산 상습 부당노동행위 업체 ... “노동부, 사측 거짓말 믿고 방관하나?”

부산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아이리 노동자들이 노동부를 찾아가 교섭 거부, 폐업 협박 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11월 30일 오전 노동부 부산지청 앞에서 ‘교섭 거부·해태, 직장폐쇄, 폐업 협박 아이리 부당노동행위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 사하구 학장동에서 수술용 실과 바늘, 메스 등을 생산하는 아이리는 현재 38일째 직장폐쇄 중이다.

배미순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아이리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아이리 직장폐쇄 38일 차다. 관할 노동부 부산지청은 뭐 하고 있나?”라며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으로 회사가 어렵다는 사측의 새빨간 거짓말만 듣고 침묵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라고 분노했다.

배미순 지회장은 “교섭 해태와 노조 지배개입하는 사측, 부당노동행위를 거리낌 없이 하는 사측을 아이리지회는 노동부에 고발한다”라면서 “노동부가 사측을 옹호한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아이리 노동자 80% 이상이 여성



으로 적게는 10년, 많게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일해왔다. 일터 통제와 갑질 횡포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은 2013년 9월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노조한다는 이유로 전임 회장에게 손찌검당하면서도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깃발을 사수하고, 단체교섭을 맺었다.

2020년 박연섭이 아이리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노조 탄압이 극심해졌다. 사측은 2021년 연차 수당 미지급, 상여금 지급방식 일방 변경, 통근버스 폐지, 노조 전임간부 회사 출입 사전 허가, 연장수당 미지급 등 노동 탄압을 남발하기 시작했다. 지회가 맞서자 사측은 직장폐쇄를 꺼내 들었다. 지회의 투쟁으로 직장폐쇄 16일 만에 노사 합의를 이뤄냈다.

2022년 사측은 16일 직장폐쇄로 생산량이 부족하다며 지회에 잔업·

특근을 요청했다. 장기간의 직장폐쇄를 위한 사측의 계략이었다. 제품 재고를 두둑이 쌓은 사측은 노동조합 무력화 작전에 본격 돌입했다.

2023년 사측은 지회와 교섭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존 노사 합의를 무시한 채 조합 활동을 무급 처리했다. 아이리지회는 7월

21일 부분 파업으로 투쟁을 시작했다. 직장폐쇄 전날인 10월 23일까지 50분에서 3시간까지 13일간 파업 투쟁을 감행했다. 10월 24일 오전 7시 30분부터 시작한 직장폐쇄는 11월 30일 기준으로 38일 차를 맞았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측의 주장은 노조의 항복을 받아낼 목적으로 자행하는 협박에 불과하다”라고 못 박았다. 사측이 ‘업무에 복귀하면 파업하지 않는다는 근로제공확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부산양산지부는 “11월 17일 노조는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소했다”라며 “노동부는 직장폐쇄와 폐업선언만 믿고 제대로 교섭에 나서지 않는 아이리를 처벌해야 한다. 공정과 상생을 위한다면 노동부가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조양·한울기공, 금속 조합원 표적 해고

대구 대표 노조파괴 업체, 110일 직장폐쇄 ... 막장 경영 책임 노동자 전가

110일 동안 직장폐쇄를 했던 조양·한울기공이 금속노조 조합원을 표적 해고하는 등 다시 노조파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농기계 부품 제조업체 조양·한울기공 노동자들은 지난 2022년 8월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2023년 사측은 임금 교섭 과정에서 분회장을 부당해고하고, 금속노조 탈퇴를 회유·협박하는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지난 5월 2일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은 5월 3일 직장폐쇄를 통보하고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내몰았다. 금속노조 대구지부 대구지역지회 조양한울분회 조합원들은 사측의 교섭 반복, 부당노동행위, 인격 말살, 민주노조 죽이기에 맞서 석 달이 넘게 파업투쟁을 벌였다.

조양한울분회는 사측과 합의해 지난 8월 21일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했으나, 사측은 복귀 첫날부터 '정리해고'를 언급하는 등 상호신뢰를 깨트리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사측은 직장폐쇄 해제 후 3개월 동안 금속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순환휴직을 통보하더니, 11월 21일 손기백 분회장에 대한 징계해고를



확정했다. 이어 28일 부분회장 2명, 사무장 1명 등 조합원 11명을 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측의 해고 대상에 비조합원은 없었다.

금속노조는 “직장폐쇄에 이은 ‘표적 해고’는 노조파괴 책동이다. 사측은 일감 감소로 해고한다고 주장했으나 노동자들에게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라면서 “사측이 자행한 직장폐쇄,

조업 중단 등 막장 경영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헌법을 부정하고 노조 파괴에 나서는 자본은 19만 금속노조의 투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며 “금속노조는 조양한울 분회 조합원들의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라고 사측에 경고했다.